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필식



“집에서 쫓겨난 남자들이 짐집방에 모여 신세 한탄을 한다. 30대는 아내에게 라면 좀 끊어 달라 했다가 쫓겨났고, 4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가 쫓겨났고, 5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따라나섰다가 쫓겨났단다. 그럼 60대는? 가만히 있는데 나가라 하더라.”

현실에서야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마는, 이 시대 아버지들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블랙 유머다.

권위의 상징이던 아버지들의 뒷모습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보라, 똑똑한 후배들에게 치이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끈하게 한 잔 하며 풀고 싶지만, 아들 녀석 학원비가 떠오를 때면 술자리는 으레 소박해진다. 지친 가슴 속으로 찬 술을 붓는다. 인생의 쓴맛을 알면 술이 달다더니, 술이 술술 넘어간다. 위축했던 마음에 비로소 호기가 생겨난다.

집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 아저씨들이 아버지가 되어 보무도 당당히 현관에 들어서지만, 유감스럽게도 가정에서조차 그

들이 설 자리는 작아 보인다.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미안한 일만 잔뜩 저지른 기분이다. 월급을 봉투로 받던 시절에는 한 달에 한 번일지언정 세상을 호령하던 큰소리 명명 쳤었는데, 은행 계좌

세상 모든 아버지들을 위하여

로 입금되고부터는 옹돈 한 푼 더 내기 위해 구차하게 핑계거리를 짜내는 신세로 전락했다.

세상에는 능력 있는 남편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건지, 아내의 불만은 점점 많아지고, 아이들은 따로 논다. 아버지가 끼어들면 대화가 끊긴다. 아이들과 친해지려 말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가장의 권위를 세워보려 큰소리를 치면 칠수록 자신이 작아지는 걸 느낀다.

대한민국 남자들, 그들은 가족들과 소중하고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들의 아버지 또한 그랬을 것이다. 아버지

의 무심함을 아속해 하면서, 그들 또한 서서히 아버지를 닮아갔을 것이다. 아이들이 울 때 엄마들은 함께 울며 상처를 아무 만져 주지만 아버지들은 가슴이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슬퍼도 아무렇지 않은 척, 속으로 울어야 했다. 남자다워야 하니까. 랜더스가 그랬던가. 아버지란 울 곳이 없어서 슬픈 사람이라고.

정말, 아버지만큼 가깝고도 먼 존재가 또 있을까. 세상 모든 자식들을 있게 한 사람이지만, 정작 자신의 분신인 자식들에게는 가까이하기 꺼려온 존재가 바로

그들이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존재다. 생전에 내뱉은 말이 푹 던진 말씀 한마디가 두고두고 생각나 가슴을 적시게 하는 존재다. 행복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다가 살기가 팍팍해질수록 생각나는 그런 존재다.

우리의 삶이 신선해졌음인가. 아버지가 다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모두가 가난했던 70년대, 지금의 아버지들의 아버지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아버지’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IMF 경제 위기를 전후로 김정현 씨의 소설 ‘아버지’와 조창민 씨의 ‘가시고기’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심금을 울렸던 적이 있는데, 10여 년 만에

다시 대중 속으로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다.

우리 시대 아버지들에 대한 애잔한 찬사가 현실 속에서 세상 모든 아버지들을 포근히 달래주기를 기대해본다. 저 무뎠던 아버지의 마음의 속살에 더없이 보드라운 사람이 있음을 일깨워주기를 소망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힘겨워하는 아내들이 많지만, 가부장제 속에서 자라나 개인주의 사회를 살아야 하는 ‘낀 세대’ 가장들의 애환에도 따뜻한 위로를 보내고 싶다. 가장의 행복과 아내의 행복이제로써 게임은 아니지 않은가.

더 이상 우리들의 아버지를 이대로 외롭게 두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술잔에 담긴 눈물을 보아야 한다. 아버지의 초라한 어깨에 얹힌 삶의 무게를 보아야 한다. 그들의 허공 속에 담긴 비애를 보아야 한다. 아버지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주름진 그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감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들도 ‘맹목적인 남자다움’의 굴레를 내려놓고 ‘인간답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야 한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가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소원한다.

〈동신대학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저축 강국’에서 ‘저축 꼴찌’로 추락한 한국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3.2%로 비교 가능한 17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70~8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저축률이 한 몫 했다. 특히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모으기 운동이 펼쳐지던 1998년에는 24.9%의 저축률로 OECD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다. 그러던 것이 2천년대 이후 소득증가율에 비해 소비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저축을 가장 안 하는 나라’로 꼴찌해 왔다.

저축률이 낮은 것은 그만큼 소비지출이 활발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낮은 저축률은 소비가 늘어사라기보다 소득 감소로 인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 때문으로 투자와 경제성장

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깨질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저소득 계층의 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적자 가계’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방증이다. 소득감소에도 대출이자와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로 가계부 적자가 커지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계층이 늘고 있다. 저축을 하락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가 유지되고 고용 여건이 급속히 호전될 조짐이 없는 현실에서 저축률이 올라가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선진국에서는 금융정책을 소득 계층별로 차별화해 저소득층에 세금 감면과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저소득 계층의 자산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당장은 힘들더라도 절약과 저축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어야 한다.

범죄 표적 된 원룸촌 치안대책 서둘러야

원룸촌 방법에 구멍이 뚫렸다. 젊은 여성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촌 일대에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가 하루가 멀다 발생하지만 정작 경찰은 속수무책인 것이다.

광주의 원룸 밀집지역은 사실상 범죄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지난 1일 경찰에 불합한 ‘광주관 발바라’ 집모씨는 지난 1년여간 서구 쌍촌동의 원룸 16곳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열 차례나 강간·강도행각을 벌여 왔다. 또 지난 3일에는 관산구 월계동 한 원룸에 사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고, 12일에도 남구 봉선동의 원룸에 2인조 강도가 침입, 잠자던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원룸촌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원룸촌은 주로 대학가와 신 도심지역에 밀집해 있는데다 혼자 생활하는 대학생이나 젊은 여성들이 거주한다. 특히 원룸은 골목길 등 비교적 으스스한 곳에 밀집해 있고 거주자들 역시 거주자

간이 일정치 않아 지역주민과 유대감이 없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원룸 밀대의 주차난 등 무질서하고 인악한 주변 시설도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원룸촌에 각종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대부분의 원룸촌이 방범용 CCTV는 물론 그 흔한 방범등 하나 없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세입자들이 ‘CCTV 작동중’이라는 안내문이라도 붙여달라고 주인들에게 호소문을 하고 있을까.

원룸촌을 더 이상 치안 사각지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경찰은 심야순찰 강화는 물론 CCTV 및 방범등 설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타도시처럼 대학,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얘기다. 특히 지자체도 경찰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원룸촌에 대한 각종 시설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밭에서 완두를 거두어들이고 난 바 되레 장마 시작 전이나 끝난 뒤에야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하고 있어서다. 48년간 계속됐던 장마예보가 올해부터 사라진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 장마라는 표현이 철학의 밤을 온통 물결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었다”

6·25전쟁을 배경으로 이념적 대립과 갈등, 화해를 그린 윤홍길의 중편소설 ‘장마’의 도입부다. 그랬다. 예전엔 장마가 한번 시작되면 정말 하루하루 이어졌다. 하늘이 뚝뚝 떨어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곤 했다. 밤마다 졸졸 새는 빗물이 며칠이고 양동이를 받쳐놓아야 했다. 고살길 넘치는 물에 잠화는 필수였고, 한참 동안은 햇빛 보기가 힘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장마의 위세가 맥 풀린 모습이다. 장마전선이 걸쳐 있어도 비는 오지 않은 채 후텁지근한 날씨가 반복된다. 비 오는 날보다 긴 날이 많고, 이따금 내리는 비도 그 양이 많지 않다. 이른바 마른 장마다.

특히 연 강수량은 증가하면서도 비가 오는 날은 오히려 주는 추세다. 집중호우가 그만큼 빈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올해 휴가철에도 ‘초 극지상’ 호우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지역간 강수량 편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날땀기 날씨’다. 사교육비 경감을 비롯한 수능 축소, 교육과정 개편 등 정부의 교육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뒤바뀌고 있다. 수없이 오라카락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변화무쌍한 날씨기 정책도 날씨 탓으로 돌릴 건가.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마른장마



특별기고

오치주



어느새 우리 사회에 균형발전의 정신은 희미해지고 있다. 지자체간 치열한 무한 경쟁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취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종합계획들이 서울과 부산에서 창의 문화도시 또는 아시아 영상문화중심도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거나 발의되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머뭇거리다가는 재정과 사회문화 등 도시 인프라가 월등한 서울과 부산에서 광주와 거의 같은 콘텐츠에 더 멋있게 포장한 계획들을 착착 진행하면, 국책사업으로 광주에 추진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상징성이 퇴색되거나 사업 축소도 우려된다.

요즘 분위기로는 광주가 먼저 계획했으니 타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유사한 사업은 자체에 달라고 사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결국은 콘텐츠 경쟁이 될 것인 바, 아시아 각국의 공통관심문화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광주·전남경쟁력 우위의 사업을 발굴·집속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된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아시아문화를 들먹이는데 과연 무엇이 아시아 문화의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가? 아시아 각국은 논과 쌀에 의존해 온 역사적, 문화적인 생활양식에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여행이나 국제회의 중에도 서양인에 비해 아시아인끼리는 이해가 잘 된다. 인구에 비해 부족했던 농지 제공주의 및 자본에 의한 수탈

문화수도에 아시아 농촌 테마파크를

의 어두웠던 역사, 산업화에 따른 도농소격차의 증폭 및 무작정 도시로의 인구이동, 농업인의 고령화 등 쌀 산업과 관련된 바가 각국이 안고 있는 문제까지도 선우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전개되는 처지이다.

왜 광주·전남지역에 아시아 농촌 테마파크(Agro Park) 인가? 이 지역은 한국의 대표적인 농도(農道)로서 산업화시대에 나타나는 급격한 이농에 따른 도시 슬럼문제, 농촌붕괴문제, 지역격차증대 및 부수되는 고통을 일찍이 혹독하게 겪었기 때문에 이제 동종의 문제에 직면한 아시

아 각국에 대해 동변상련의 정을 느끼고 있고, 또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축적된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까이 아시아 각국과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이는 U-대화 유치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한편, 아시아 제국은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과정에 우리 농업·농촌이 대처해온 경험과 슬기어 막말과 있다. 대표 농도인 이 지역에 아시아 농촌테마파크야말로 이 같은 양측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데 최고의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이 지역에 아시아 각국의 농촌출신 여성들

위주로 아시아권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다문화 가정인 형성되는 현실이고 보면, 테마파크를 통해 적절한 정책만 지원되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보다는 훨씬 승화된 아시아 다문화교류의 꽃이 이 지역에 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디즈니 월드규모에 쌓을 위시한 아시아 등 세계농산물과 특산물을 재배시켜 생산과정, 농사기구, 농법, 생활상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로 한국 농업의 특징 및 장점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세계 어린이 및 도시민의

관광 및 농촌체험의 장으로 진전시켜 세계농업·농촌의 과거를 뒤돌아볼 수 있는 역사박물관, 국제세미나·교육장, 환경농업과 웰빙농촌 콘텐츠 개발 장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각국 농산물 재배과정 등 주요전시물은 우리의 우수한 게임 등 미디어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콘텐츠를 이용하여 사시사철 세계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발하고, 체험지에서 생산되는 세계농산물의 비교과정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자연스럽게 수출로 연결되도록 한다.

그밖에 도농격차, 지역격차를 극복하여 나가고자 광주·전남이 선도적으로 실시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성인병·노화방지와 다이어트 등을 겨냥한 특정 기능성 채소 재배, 시범미네랄 신선채소농장, 바이오파스에너지센터, 전통문화예술 체험장, 김치 등 먹거리 체험장, 생체치료 전문 복합단지 등을 집중조성하면,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마스터플랜을 맡고 있는 주체들에게 미시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아시아농촌테마파크(Agro Park) 조성과 관련된 당위성 및 수출, 관광수입, 국내외 민자유치가능성 등 경제성 검토를 기대해본다. 어쨌든 아시아문화수도가 되기 위해선 우선 아시아 사람들이 상시 몰려들어야 그 발판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초빙교수〉

법조칼럼

정경진



광주지방법원은 늘어나는 범인도피사범, 위증사범, 무고사범에 대하여 2009년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여 많은 죄없는 국민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아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해마다 이와 같은 거짓말 범죄가 광주, 전남지역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한 편의 영화가 떠오른다. 지난 1988년 짐케리가 주연한 ‘트루먼쇼’라는 영화가 흥행을 거둔 적이 있었다. 이 영화는 자신의 일상 생활이 생방송되는 줄도 모르고 약 30년 동안 살아온 주인공 트루먼 베버(짐캐리 분)가 텔레비전 제작진과 시청자들의 공모로 인해 거짓으로 절절한 자신의 삶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휴먼드라마이다.

영화속의 트루먼은 하루 24시간 생방송되는 ‘트루먼쇼’의 주인공인데, 이러서부

터 철저하게 TV제작진에 의해 만들어진 ‘스튜디오 세트’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 트루먼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라는 사실을 알지

범죄인들의 ‘트루먼쇼’

못한 채 어렸을 때부터 제작진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를 다니고, 만들어진 거기에 서 물건을 사고, 만들어진 직장에 다니며 생활하게 된다.

시청자인 전 국민들은 이같은 트루먼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며 즐거워하지만 오로지 트루먼만 이를 모르고 지내던 중 문득 주위 상황에 대해 의혹을 품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 트루먼은 제작진의 방해 속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주위의 모든 것이 가짜라

는 사실을 알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카메라가 없는 ‘진짜’ 세상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이다.

‘트루먼쇼’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좋은 영화인데, 이는 범죄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수사기관만 모르게 국민들이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또 범행을 자백한 사람은 자신이 실제 범인이 아님에도 허위로 증거를 조작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의 자칭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법정에서도 국민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보았음에도 ‘본 적이 없다’라고 거짓 증언하면 재판부가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 검찰과 범인이 피해를 입는 것보다 더 큰 인하여 ‘죄’ 있는 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 죄없는 국민이 억울하게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있다. 광주지검 자료에 의하면 범인도피사범

은 2007년 상반기 7명에서 2008년 상반기 20명, 2009년 상반기 33명으로 크게 늘었다. 위증사범도 2007년 및 2008년 각 상반기 21명에서 2009년에는 39명으로 늘어나는 등 그 범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 국민들이 다소 정(情)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이 ‘나 좀 살려줘,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딱 한 번만 해줘’라고 부탁하면 부탁을 받는 사람은 ‘알았어, 그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범인도피사범과 위증사범 등을 조사해 보면 “제 죄가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몰랐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몰랐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줬으면 한다.

검찰도 조작된 거짓 세계에서 사는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더욱 더 부단히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거짓말 사범을 엄단하여 “거짓말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건전한 법의식을 확립시켜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광주지검 검사〉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